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청소년증 의무화에 대한 제안 -

고양시청소년의회 노하영 의장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노하영입니다. 발언에 앞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양시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6조」에 의거하여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 모두가 평등하게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로 시작한 청소년증은 발급률 저조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7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2003년 515명 발급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03~2017년까지 총 74,447명이 발급 받았으며, 가장 많이 발급받은 201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체 청소년인구 924,900명 중 18,856명으로 약 2% 정도만이 발급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청소년증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부족과 홍보미흡으로 인해 청소년증을 알고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 학생증과 기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증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비재학 청소년들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청소년증 사용을 꺼려 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청소년증의 의무화'는 법으로 제정된 정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만큼이라도 '청소년증 의무화'를 통해 학생과 비학생 구분없이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여 평등한 청소년환경을 조성하는데 고양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 본인이 선택에 의해 알아보고 오지 않는 이상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증을 의무화하여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청소년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줄어들고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사라지기를 희망합니다.

청소년증 의무화 과정에서는 청소년증 사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대토론회를 열고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 및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혜택 영역 확대와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적 기능을 갖추어 더 다양한 곳에서 쉽게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준 고양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고양페이'도입을 통한 지역상권활성화를 청소년증과 연계 하는 것도 좋은 예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증'이 더 이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